하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박희태

한나라 몫 부의장 정의화·민주당 몫 홍재형

오늘 본회의장서 공식 선출 예정

한나라당 박희태(경남 양산·6선) 의원이 7일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 의원은 이날 경선에 출마한 4선의 이윤성 의원이 막판 사퇴함에 따라 무경선으로 확정됐다.

또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는 4선의 한나라당 정의화(부산 중·동구) 의원, 야당 몫에는 3선의 민주당 홍재형(청주 상당구)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1차 투표에서 97표를 얻어 경쟁자인 박종근, 이해봉 의원을 큰 표차로 누르고 뽑혔다.

민주당 홍 의원은 1차 투표에서 32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5선의 박상천 의원과 결선 투표를 벌인 결과, 39표 동수를 얻었으나 연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부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1938년 3월생인 홍 의원의 나이가 같은 해 10월생인 박 의원보다 7개월 많은 것이다. 주류 측에서 밀었던 4선의 이미경 의원은 1차 투표에서 20표를 얻는데 그쳐 탈락됐다.

애초 이·박 의원 간 대결로 예상됐던 민주당 부의장 경선에서 홍 의원이 선출된 것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민주당 승리에 대한 당의 보답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8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

이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우리 국회는 이대로 안 되겠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면서 "변화의 새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제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제도를 창안한다기보다 국회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된다"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국회다운 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국회가 입법의 장이 될 뿐 아니라 모든 문제점을 국회에서 해결하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능제강'(柔能制剛) 이라고 했는데 유한 듯한 사람이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다. 부드러우니까 모든 것을 유야무야 넘어가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면서 "또한 '늙은 말이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간다'는 중국 고사가 있는데 노마지지(老馬之智)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저는 단호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다"면서 "제가 신경외과의 권위자로서 자부하는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는 결단을 내리겠다. 그것이 당과 조국을 위한 것일 때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의장 후보인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화합으로 따뜻해지고 활력으로 용솟음치는 한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지도부의 뜻이 국회 의장단에 받아들여지도록 소통과 지원의 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프로필/

박희태 국회의장 후보자

▲경남 남해(72) ▲서울 법대 ▲부산고검 검사장 ▲ 법무부장관 ▲한나라당 부총재·최고위원·대표 ▲국회부의장 ▲13~18대 의원 ▲부인 김행자(68)씨와 2녀.

정의화 국회부의장 후보자

▲경남 창원(62) ▲부산대 의대 ▲봉생병원 원장 ▲국회 재경위원장 ▲한나라당 원내수석부총무·인재영입위원장 ▲15~18대 국회의원 ▲부인 김남희(57)씨와 3남.

홍재형 국회부의장 후보자

▲충북 청주(72) ▲서울대 상대 ▲대통령 경제비서관 ▲부총리 겸 재경장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6~18대 의원 ▲부인 전윤숙씨(73)와 1남1녀.

정무위장 허태열·법사위장 우윤근

여야 상임위원장 후보 18명 잠정 확정

여야는 7일 18대 국회 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장 후보 18명을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앞선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정무·기획재정위 등 11개는 여당인 한나라당 몫, 법제사법·교육과학기술위 등 6개는 민주당 몫으로 허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유선진당에서 맡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워크숍을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 11명을 확정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무성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고 ▲정무위원장 허태열 ▲기획재정위원장 김성조 ▲국방위원장 원유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정병국 ▲정보위원장 정진석 의원으로 결정됐다.

또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국토해양위,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등 5개 위원회의 경우 2년의 위원장 임기를 1년씩으로 나눠 2명이 차례로 맡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행안위원장은 안경률 의원이 먼저 한 뒤 이인기 의원이 다음 1년을, 국토해양위원장은 송광호 의원이 먼저 1년을 하고 장광근 의원이 다음 1년의 임기를 맡기로 했다. 외통위원장은 원희룡 의원이 첫 1년의 임기를 먼저 맡기로 했으며, 다음 1년을 담당할 후임자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특히, 후반기 국회 첫 1년의 예결위원장은 이주영, 윤리위원장은 정갑윤 의원이 맡고, 다음 1년은 두 의원이 서로 자리를 맞바꾸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날 오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워크숍을 열고 상임위원장 후보를 최종 결정했다.

확정된 상임위원장 후보는 ▲법사위원장 우윤근(재선)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변재일(재선)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재선) ▲지식경제위원장 김영환(3선) ▲환경노동위원장 김성순(재선) ▲여성위원장 최영희(초선) 의원이다.

자유선진당은 자당 몫으로 할당된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3선의 이재선 의원을 내정했다.

이들은 8일 오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당 워크숍 무슨 얘기 오갔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가 7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10년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잘해서 이긴 것 아니다" 자성론도

세종시 등 16개 법안 반드시 저지… 대여 공세 완급 조절

민주당은 7일 의원 워크숍에서 '합리적 대안정당'을 하반기 정국 대응 기조의 좌표로 정하고, 대여 투쟁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세종시 원안 추진, 4대강 사업 저지,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3대 현안으로 설정, 강하게 대응하되 강경 일변도 투쟁 방식을 자제하고 대안 제시에도 집중하는 등 강온 병행 전략을 수립기로 했다. 6·2 지방선거의 승리에 매몰돼 강경 드라이브에 치우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변재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선거결과에 자만하거나 오판해선 곤란하다"며 "합리적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아, 자력으로 국민 지지를 얻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천안함 사태의 경우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한반도 평화수호 결의안' 제출을 검토하는 등 대여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정부 조사결과를 반박할 물증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 전체적 대응에 있어선 최대한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4대강 사업 또한 '반(反)MB 연합전선'을 구축해 재검토 작업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서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현실과 해당 지역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자는 속도조절론도 나오고 있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의 33개 중점 추진법안 중 세종시 수정안 등 16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적극 협조하거나 조율을 모색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6월 국회에서 민생, 영세상인, 서민을 보호하는 초당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싸우지 말고 일 좀 하자는 자세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성론도 나왔다. 강창일 의원은 서면 발언자료를 통해 "오자병법을 남긴 오기(吳起)라는 사람은 다섯 번 이기는 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오승자화(五勝者禍)'라는 말을 남겼다"며 "이번 승리를 통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당내 모든 문제를 덮고 넘어간다면 승리가 오승자화의 덫에 걸리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세환 의원은 "의원들이 세종시 문제로 단식을 해도 당 대표는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한번 안 했다"며 "당의 선명성이 부족하다"고 지도부를 비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민주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 인위적 세대 구별보다는 노·장·청의 결합을 통해 당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확산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위해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 그리고 강력한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조영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선거패배 책임 사의 표명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7일 6·2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 비공개 토론에서 대표직 사의를 밝힌 뒤 곧바로 퇴장했다. 당내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의를 만류하기로 했지만 이 대표의 결심은 돌아서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의 표명에 앞서 이 대표는 친 노무현 세력의 부활을 견제하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대연합을 강조, 눈길을 끌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 이어 자유선진당도 지방선거 후폭풍에 직면하면서 7·28 재보선과 당 운영 등에 있어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